

중국의 소수민족어정책과 소수민족어의 현황 연구*

崔昞鳳·太平武**

< 목 차 >

1. 머리말
2. 소수민족어정책의 전개 과정과 목표
 - 2.1 소수민족어정책의 성립 배경과 전개 과정
 - 2.2 소수민족어정책의 시기별 정책 목표
 - 2.3 소수민족어정책과 소수민족어 연구의 상관성
3. 소수민족어의 위상 및 규범화 현황
 - 3.1 언어 및 문자의 현황
 - 3.2 언어 및 문자의 규범화 현황
4. 민족어의 사용 및 언어교육 현황
 - 4.1 민족어 사용 현황
 - 4.2 민족어 교육 현황
 - 4.3 이중언어교육의 현황
5. 결론

1. 머리말

본고에서는 중국 정부 수립 이후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면서, 소수민족어정책과 소수민족어 위상의 상관성을 소수민족어의 연구경향, 규범화, 교육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소수민족어의 현황과 관련하여 소수민족어정책에 접근한다면, 민족공동체와 국가공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013-A00026). 이 연구는 여러 소수민족 언어학자의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中國少數民族雙語教學研究會 이사장인 丁文樓 교수님과 중앙민족대학 몽골어문학부 那木吉拉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圓光大 국문과 교수, 中國 中央民族大 교수.

동체의 갈등과 협력, 민족어와 국가통용어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으며, 소수민족어정책의 효과와 향후 전개 양상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한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 중에서 본고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이연주(2003, 2006)와 김영구(2009)이다. 이연주(2003, 2006)에서는 소수민족어의 현황과 소수민족어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였지만 연구목적상 개괄적인 소개에 머물렀으며, 김영구(2009)에서는 소수민족어정책의 한계를 지적하였지만 소수민족어정책을 ‘지배자에 의한 피지배언어의 사용제한’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국어와 소수민족어의 현실적 역학 문제를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 조선어, 몽골어, 위구르어, 카자흐어, 티베트어 등 다섯 민족어를 대상으로 소수민족어정책과 소수민족어 위상의 상관성을 살펴본 것은 이연주(2003, 2006)의 연구를 심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소수민족어정책과 소수민족어 위상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소수민족어정책의 실제에 접근하고자 한 것은 김영구(2009)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중국 소수민족어정책의 전개 과정을 중국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과 관련지어 보일 것이며, 소수민족어의 위상 변화 과정을 언어정책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소수민족어의 연구경향을 검토하고, 소수민족어 연구경향과 언어정책의 상관성을 서술할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소수민족어의 사용, 규범화, 교육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언어정책이 소수민족어 현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중국을 언어학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궁극적 문제의식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국학 및 국어정책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려는 데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본고의 논의는 중국 조선어의 위상을 이해하는 문제¹⁾와 결

1)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조선족의 인식 태도를 소수민족공동체와 국가공동체와의 관계라는

부된다는 점에서 중국 한국학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중국의 소수민족어정책은 다문화시대를 맞아 국어교육 및 국어정책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우리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²⁾ 본고의 목적상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지는 않겠지만, 본고의 논의가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소수민족어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지적하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소수민족어정책의 전개 과정과 목표

2.1 소수민족어정책의 성립 배경과 전개 과정

‘중화민족’과 ‘소수민족’에 사용된 ‘민족(民族)’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전자가 국가(nation)의 의미라면 후자는 종족(ethnic)의 의미로 쓰인다.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다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중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이 붕괴되고 신국가 건설 운동이 본격화할 때 제기된 ‘중국인의 범위’ 문제는 근대 중국의 국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된다. 大民族主義적 관점에서는 민족 간 연합의 성격을 띠는 연합국가나 연방제 국가를 지향한 반면, 單一民族主義적 관점에서는 강력한 민족동화를 전제로 한 중앙집권적 민족국가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중화민국 건국 시 손문은 五族³⁾이 화합한 중화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은 중국의 한국학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최경봉(2010)을 참조할 수 있다.

2) 국어정책에서 다문화사회와 언어적 소수자 문제가 부각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어정책을 참고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종열·범령령(2009)과 김정호(2008)는 다문화시대의 국어정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3) 이때 五族은 漢, 滿, 蒙, 藏, 回 등이다.

민족의 국가를 건설해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한족이 중심이 되고 소수민족이 연합한 형태의 민족국가를 건설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로부터 ‘민족’에는 혈연적 공통성과 정치적 연합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손문의 민족관을 계승한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정책은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소수민족의 종교, 문화, 언어를 존중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공내전 당시 공산당의 민족정책은 민족동화론에 근거한 국민당의 민족정책과 뚜렷이 비교되었고, 이러한 정책의 차이는 소수민족공동체가 중국의 건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⁴⁾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소수민족은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단위이면서 동시에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혈연적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중국의 국어정책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수립된 것이다.

(1) 다민족국가의 국어정책(김민수, 1990)

- 가. 國家語制 ㉠단수국어(주종관계)-일본, 미국, 영국, 불란서, 멕시코
 ㉡복수국어(대등관계)-스위스, 벨기에, 핀란드, 캐나다
 나. 共通語制 ㉢복합국어-소련, 중국, 체코, 싱가포르
 ㉣제3국어-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콩고

김민수(1990)에서는 다민족국가의 국어정책을 비교하여 (1)과 같이 유형화하면서 중국의 국어정책을 복합국어정책으로 규정하였다. 漢語를 공통어로 정립하면서 동시에 소수민족자치주의 민족어를 자치주의 공용어로 채택하는 중국의 복합국어정책은 국가적 통일성을 중시하면서 민족정체성과 자치를 인정하는 融和的 민족정책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수립 이후 소수민족정책은 중국 정치 상황의 변동과 맞물려 同

4) 중국 공산당은 항일투쟁 당시에도 소수민족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원칙은 국공내전 시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한 예로 국공내전 당시 연변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의 거의 대부분이 공산당을 지지했으며, 중국에 거주하던 6만여 명의 조선인이 국민당과의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化政策과 融和政策을 반복했고⁵⁾, 국어정책도 이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겪었다. 그렇다면 소수민족어정책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현대사의 시대적 전환점과 관련지어 소수민족정책 및 소수민족어정책의 변동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중국사 연구에서는 중국 수립 이후 현대중국사를 대체로 4기로 구분하는데, 시대적 전환점에 대한 인식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이는 대약진운동(1958년)과 문화대혁명(1966년)을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인식⁶⁾과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태를 각각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인식⁷⁾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간 소수민족어정책사 논의는 전자의 인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수민족어정책의 실질적인 변동 양상을 볼 때,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천안문 사태는 각각 시대적 전환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의 시기가 계획적이고 인위적인 정책을 통해 언어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던 시기라면,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시기는 언어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언어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8년⁸⁾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언어상황에 대응하여 언어정책이 재정립되었다는 점을 보면 이 시기를 소수민족어정책사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정책사는 대체로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2) 소수민족어정책사의 시대구분

1기: 중국 건국 이후부터 대약진운동 이전까지의 시기(1949-1958)

2기: 대약진운동 시기부터 문화대혁명 이전 시기까지(1958-1966)

5) 본고에서는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이 '융화→동화→융화→동화/융화 양면정책'의 순으로 전개되었다고 본 주장환(2009)의 논의에서 '융화(融和)'라는 용어는 수용하되, 소수민족정책은 '융화→동화→융화'의 순으로 전개되었다고 본다.

6) 1기(1949-1958), 2기(1958-1966), 3기(1966-1976), 4기(1976-현재)

7) 1기(1949-1966), 2기(1966-1976), 3기(1976-1989), 4기(1989-현재)

8) 1987년 10월 제13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 계획적 상품경제 체제는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라고 하여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의 강화를 주장하였으며, 1992년 10월 제14차 당대회에서는 중국경제체제개혁 목표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설'로 선언하게 된다.

3기: 문화대혁명시기(1966-1976)

4기: 문화대혁명기 이후부터 천안문 사태 이전까지(1976-1988)

5기: 천안문 사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1989-현재)

다음 절에서는 (2)의 시대구분을 바탕으로 소수민족정책의 시기별 정책 목표를 살펴볼 것이다.

2.2 소수민족어정책의 시기별 정책 목표

첫 번째 시기는 중국 건국 이후부터 대약진운동⁹⁾ 이전까지의 시기(1949-1958)로 통일국가 내에서 민족자치를 강화하여 소수민족을 포용하려고 한 시기이다.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이 시작되면서부터 표방된 “각 민족은 모두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라는 소수민족어정책의 기본강령이 헌법에 명시되었고 이는 현재 중국 헌법 총 규약 4조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구성된 각 소수민족 자치정부는 민족어교육과 민족어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두 번째 시기는 1958년부터 문화대혁명 전까지의 시기(1958-1966)로 계급투쟁을 통해 민족문제를 해결하려 한 시기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시기의 특징은 대약진운동의 시작과 실패 그리고 수정주의 노선의 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수민족어정책은 혼란스럽게 진행되었다. 대약진운동이 일어난 50년대 말에는 사회주의국가체제의 확립이라는 목표가 강력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민족적 특수성을 보장하는 첫 번째 시기의 정책과 상반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당시 소수민족정책의 방향은 1958년 10월 전국소수민족교재출판회의에서 결정한 편집원칙에 잘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것을 상세히 하고 외국의

9) 중국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던 1958년에 전국적으로 대약진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는 사회 전반을 사회주의로 개조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것을 간략하게 하여야 하며 옛것을 적게 하고 오늘의 것을 많이 편집하며 통용교재를 위주로 하고 민족보충교재를 부차적으로 하여야 한다. 민족보충교재, 민족고전작품, 외국작품의 비례는 모두 합쳐서 3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엄영준: 2004)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편집 원칙은 혈연적 동화보다는 이념적 원칙에 의거한 국민통합을 강조한 것이지만, 소수민족어의 한어화를 부추기는 상황에서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1958년 이후에 언어융합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언어융합론은 중국이 단일어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인 정책이 한자를 포함한 모든 민족의 고유문자를 폐기한다는 문자정책이었다. 이는 소수민족어의 한어화와 모든 문자의 로마자화(한어병음자모)를 목표로 했다.¹⁰⁾ 더구나 문화대혁명기(1966-1976)에 지방민족주의 청산을 명분으로 한 민족동화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소수민족어정책은 폐기되기에 이른다. 네 번째 시기는 문화대혁명 종료 후부터 천안문 사태 이전까지의 시기(1976-1988)이다. 1기의 정책을 기조로 소수민족어정책을 재정립하되 한어의 보급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헌법 총 규약 4조), “국가에서는 전국에 보통어를 보급한다.”(헌법 총 규약 19조), “민족자치 지방의 자치기관에서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민족자치 지방자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 지역에서 통용되는 한 가지 또는 몇 개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헌법 3장 6절 121조) 등의 규정을 통해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언어정책은 언어문자에 대한 인위적 개혁을 지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985년 ‘중국문자개혁위원회’를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로 바꾸고, ‘한자는 반드시 개혁하여 병음화로 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철회하면

10) 1959년 1월 보고된 연변어문연구회준비위원회의 ‘한자사용의 필요성과 구체사용방안’에서는 궁극적으로 한어병음자모를 사용해야 함을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가정하는 문자 사용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인명, 지명 및 음차하는 어휘에만 한자를 사용하되 ()안에 한자를 넣어 쓰며(1단계), 인명, 지명 및 음차 어휘를 한자를 차입하여 표기하고 ()내에 한어병음자모로 어음을 표기하고(2단계), 한자도 ()도 다 취소하고 직접 음차어를 한어병음자모대로 쓴다(3단계).

서 제3차 간략한자 방안도 취소하였다. 또한 소수민족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었던 신문자를 폐기하면서 고유문자를 살려 쓸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자문화권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소수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소수민족어정책이 정교해지고 소수민족어의 위상도 높아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소수민족어정책이 정교해진 것은 소수민족별로 어문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를 만든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북3성 조선어문 협의소조(協議小組)(1977년 5월), 8성 자치구 몽골어문 공작협의소조(工作協議小組)(1976년 10월), 5개 성구(省區) 티베트족 교육협작영도(教育協作領導)(1982년 8월), 신강위구르자치구 민족어언문자공작위원회(民族語言文字工作委員會) 등이 설립되었고, 이 기구를 중심으로 민족어의 규범화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소수민족어의 위상 변화 중 주목할 것은 대중매체에서 소수민족어가 활발하게 쓰인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소수민족어 방송이 시작되는데, 198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위구르어, 티베트어, 몽골어, 조선어, 카자흐어 등 7개 소수민족어 텔레비전 방송이 실시되었다.

다섯 번째 시기는 천안문 사태 이후부터 현재까지(1989-현재)이다. 소수민족어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네 번째 시기와 동일하였지만, 경쟁에 기반한 경제 체제 하에서 한어의 능숙도(proficiency)는 경쟁력의 지표가 되었고 이는 한어와 소수민족어의 역학관계가 급변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소수민족어정책의 목표는 이중언어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미 네 번째 시기부터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¹¹⁾, 국가통합의 이념을 강화함과 동시에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이중언어교육을 사소한 것은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90년대 들어 ‘다원일체화교육론(多元一體化教育論)’¹²⁾이 제기된 것은 이 시기 중국 교육의 지향

11) 中國少數民族雙語教學研究會는 소수민족의 언어 문제와 이중언어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학회로 1979년 창립되었다.

12) 1990년 중반 민족교육학자 滕星이 제기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한 ‘다원일체화교육론’의 핵심은 중국의 소수민족들에게는 해당 민족의 문화를 교육하는 동시에 주체민족인 한족의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중언어교육 정책은 한어 학습의 수월성과 한어 능숙도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두 가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어 학습 방법을 체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96년부터 소수민족학생의 한어 수준 평가에 중국한어수평고시(HSK)를 도입하고, 2003년부터 중국소수민족한어수평등급고시(MHK)를 도입한 조치이다.¹³⁾ 특히 HSK의 도입은 소수민족학생의 한어 학습에 '외국어로서의 한어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인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강조된 실용정신이 산업화 인력을 육성하는 언어교육에 적용된 것이다. 둘째, 보통화와 규범한자를 국가통용 언어문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통화의 보급과 한자규범화 사업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였다. 2000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 언어문자법>¹⁴⁾을 채택한 것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 법의 취지는 원론적¹⁵⁾이지만 소수민족어를 인정하면서도 통용어와 문자를 강력하게 보급한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데에 이 법의 언어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소수민족어정책은 이념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태도에서 실용적 태도로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개혁개방을 통한 산업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최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성장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중국적 전통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7년 5월에 열렸던 중국공산당 제 17차 당 대표 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우수한 중화문화전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한 문화를 교육하고 더 나아가 한족들에게도 주류 민족인 한족의 문화를 교육하는 동시에 소수민족의 우수한 문화도 함께 교육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김정호(2008)를 참조할 수 있다.

13)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4장에서 진행할 것이다.

14) 이 법은 2000년 10월 31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2001년 1월1일부터 실시하였다.

15) “국가 통용언어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및 그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시켜 국가 통용언어문자가 사회생활에서 더욱 훌륭하게 역할을 발휘하고 각 민족, 각 지역의 경제문화교류를 추진시키기 위해 헌법에 좇아 본 법을 제정한다.”(제 1장 총칙 1조)

현대과학기술수단으로 민족문화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 이용해야 한다. 각 민족의 문화에 대한 발굴과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며 고대문화 서적 정리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¹⁶⁾고 강조하는데, 이는 중국이 소수민족어의 보호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정책변화는 없지만 향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3 소수민족어정책과 소수민족어 연구의 상관성

중국에서 소수민족어에 대한 연구는 정책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학술적 관점에서의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두 방향의 연구가 대체로 소수민족어정책에 맞춰 진행되었다.

소수민족 언어정책사의 1, 2기는 민족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민족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때 민족을 구분하는 문화인류학적 연구는 언어구획이나 방언구획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특히 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은 중국 언어학계가 소수민족언어에 대한 조사연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시기이다. 이때의 조사연구는 민족어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¹⁷⁾

그런데 1기의 조사 연구가 소수민족어의 규범화를 위한 연구를 지향한 반면, 2기의 조사 연구는 어문개혁을 위한 연구를 지향하였다. 이에 따라 1기에는 소수민족자치지역을 중심으로 언어규범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2기에는 신문자 창제와 기존 문자의 로마자화 등 언어문자의 개혁과 관련한 연구

16) 민족출판사에서 출간한 당대표대회 보고문 번역본(39쪽) 참조.

17) 중국의 경우 1930년대부터 미국 기술언어학이 소개되기 시작하여 1930-1942년 사이에 운남, 광서, 귀주 등지에서 소수민족어 조사를 진행하였다(趙振鐸 2000: 512-513 참조). 이는 다민족 다언어국가인 중국에서 소수민족어 연구가 중국 근대어학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가 진행되었다.

4기에는 민족어규범화 및 민족어교육 체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어사전의 편찬과 소수민족어의 문법 기술 등이 이루어진다. 이때의 소수민족어 연구는 각 민족별 언어규범화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민족어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민족어 교육의 토대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5기에 들어서서 소수민족어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는 소수민족어의 사용 현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때 연구의 초점은 언어접촉에 의한 언어 변화였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 이동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소수민족어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소수민족어의 변화 양상과 이와 관련한 소수민족공동체의 의식 변화 등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¹⁸⁾가 활성화된 것이다. 사회언어학적 연구 외에도 민족어교육이나 이중언어교육과 관련한 연구도 확대되는데, 이는 소수민족어정책과 긴밀한 관련 하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상관성은 32호 문건¹⁹⁾의 민족어문 공작 시책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32호 문건에 나타난 민족어문 공작 시책²⁰⁾

- 가. 실제에서 출발하고(實際出發), 분류하여 지도한다(分類指導).
- 나. 각 민족이 상호 언어문자를 학습한다.
- 다. 이중언어 교학을 실행하고, 보통화를 널리 보급하고, 민족어문 연구를 강화한다.
- 라. 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3가)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률적인 언어정책을 반성하고 소수민족의 환경

18) 이를 특별히 '언어접촉학'으로 부르는데, 한어와의 접촉에 따른 소수민족어의 변화 양상이 음운적 변화부터 어휘적 변화 문법적 변화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19) 현재 중국 소수민족언어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국무원 32호 문건에 제시되어 있다. 이 문건은 87년부터 조사 연구한 결과를 91년 6월 보고한 것인데, 현재까지 중국의 소수민족어문공작에서 지도 지침이 되고 있다.

20) 馬麗雅 外(2007: 196-199)

과 조건에 따라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소수민족어현황 조사는 다양한 변인을 포착하여 정교하게 진행되었고²¹⁾,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각종 보고서와 논문의 형식으로 보고되었다.

(3가)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1, 2기에 걸쳐 진행되었던 문자개혁 및 신문자창제 사업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했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대혁명으로 중단되었던 소수민족어 문자창제 사업을 1979년 재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이상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위구르와 카자흐의 경우 50년대 말부터 로마자를 바탕으로 한 신문자를 공용문자로 하였고, 1976년 7월 15일 新疆 위구르자치구 혁명위원회에서 위구르와 카자흐의 구문자 사용을 금지하고 신문자를 전면적으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였지만, 1982년 11월 자치정부 결정으로 구문자로 회귀하였다. 1979년에 제출된 新疆 민족어문사업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인위적인 문자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²²⁾ 이러한 실패를 경험 삼아 90년대 이후 소수민족 문자 연구는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데,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소수민족문자 코드의 국제표준 제정 등과 같은 소수민족문자의 정보처리이다.

(3나)에서 주목할 부분은 잡거지구 등에서 민족 간 상호 민족어를 학습하여 언어적 평등과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 헌법에 보장된 “민족어를 말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원칙을 보다 현실성 있게 만들겠다는 시도이다. 언어의 교류가 실제 강력한 권력언어에 집중되는 속성을 감안한다면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각 소수민족 지구에 한족의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다문화교육의 차원에서 취한 조치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은 원칙상으로 제2언어교육에 속한다. 다만 국외 민족국가가 존재하는 경우 민족어문 과목은 외국어교육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한 예로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조선족자치주 내 한족학교에서 진행되는 조선어교육은 외국어교육의 성격이 강하다.

21) 이들 연구에서 언어사용의 제약 요인으로 설정한 것을 보면, 인구수, 분포특징, 경제형태, 문화교육 수준, 종교신앙, 혼인상황, 언어태도 등을 들 수 있다.

22) 1979년 당시 신문자 해득률이 학생 75%, 간부 65%, 농민 50% 미만 등으로 나타났다.

(3다)는 산업화에 필요한 소수민족 인력을 배양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를 보여준다. 이 조치는 산업화에 따라 전 국민이 보통화로 소통할 필요가 있지만 소수민족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어문의 연구와 교육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한어능력의 향상과 소수민족어의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언어교육학 및 언어심리학적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었다. 민족어문 연구의 강화와 관련하여 부각되는 주제는 언어규범화 연구, 민족어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연구, 소수민족어의 교육현황 조사와 교육방안 연구 등이다. 이러한 연구조사는 대부분 언어접촉에 따른 민족어 변이에 대응하고, 민족어와 한어 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연구 결과는 언어정책 관련 연구로 이어지게 된다.

3. 소수민족어의 위상 및 규범화 현황

이 장에서는 소수민족어의 위상과 소수민족어정책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소수민족의 언어 및 문자의 사용 상황을 유형화하고 그것의 규범화 현황을 보일 것이다.

3.1 언어 및 문자의 현황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인구의 많고 적음, 문자의 유무(有無) 등을 고려하여 민족어 정책의 특징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인구나 문자의 상황²³⁾에 따라

23) 현재 30개 민족이 47개의 문자 또는 병음문자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문자의 사용 정도는

민족어의 교육 방식, 민족어의 규범화 방식, 민족어의 활용 영역 등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예로 고유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학교에서 민족문자와 민족어를 먼저 교육하고 한어를 나중에 교육하는 반면, 고유문자가 없거나 활발히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한어병음을 먼저 가르치고 민족어를 교육의 보조어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언어외적인 측면에서는 소수민족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중국 내 소수민족 중 그 민족이 중국 국경 밖에서 독립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언어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환경이 언어정책이나 민족어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1> 민족어와 민족문자의 위상

	고유 문자	사용자수 ²⁴⁾	집거지구 형태	국외 사용국가	사용자 수	동일언어권 단일어국가
조선어	○	1,923,361	자치주	남북한	국내<국외	○
몽골어	○	4,802,407	자치구	몽골국	국내>국외	○
위구르어	○	7,207,024	자치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국내>국외	
티베트어	○	4,593,072	자치구	인도	국내>국외	
카자흐어	○	1,110,758	자치주	카자흐스탄	국내<국외	

위의 표를 보면 어느 정도 사용 규모를 갖춘 소수민족어의 경우 대부분이 跨境言語(languages across borders)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소수민족어는 국외 사용자와 국내 사용자의 인구수, 교류 관계, 단일어국가의 존재 등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조건에 따라 그 언어적 위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제각각이다. 이중 조선어, 몽골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카자흐어 등은 전통적인 문자가 있는 경우이고, 이외 민족들의 문자는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문자이거나 시험적으로 만든 문자들이다.

24) 1995년 인민출판사 간행 『中國民族概覽』 참조.

조선어는 국외 사용자가 중국 내 사용자보다 절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단일어국가도 존재하는 언어이다. 이 경우는 중국 내 소수민족어가 국외 민족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국 조선어는 중국 건국 이후 북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며 한중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부터는 남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경제·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 조선어의 한국어화는 불가피하겠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중국 조선어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몽골어의 경우 국외에 단일어국가인 몽골공화국이 존재하지만, 중국 내 사용자가 국외 사용자보다 많다. 이 경우 국외 국가가 해당 자치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몽골공화국의 몽골어가 중국 내 몽골어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현재 몽골공화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내몽골어가 외몽골어에 경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위구르어, 티베트어, 카자흐어의 경우는 이들 언어의 국외 사용국가가 단일어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선어나 몽골어의 사용 상황과 다르다. 특히 카자흐어의 경우 중국에 거주하는 사용자보다 국외사용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국외사용자 역시 이중언어에 노출된 상황인 점을 볼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자의 사용 문제는 언어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문자의 사용은 언어 사용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에 따라 먼저 문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戴慶厦外(2000)에서는 소수민족 고유문자의 사용자분포 및 사용영역을 근거로 그 중요도를 평가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소수민족어의 사용 현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戴慶厦外(2000: 31)의 내용 중 본 연구의 고찰대상이 되는 다섯 민족의 문자 사용양상을 선별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2> 소수민족 고유문자의 사용 양상²⁵⁾

문자명칭	사용 영역						
	생산 활동	정치	신문 방송	학교 교육	종교	문헌	정보 처리
몽골문	3	3	3	3		3	3
티베트문	3	3	3	3	3	3	3
위구르문	3	3	3	3	3	3	3
카자흐문	3	3	3	2		1	
조선문	3	3	3	3		3	3

위의 조사를 볼 때 본 연구 대상인 다섯 민족의 문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구르문과 티베트문이 종교 영역에서 사용되는 점을 볼 때, 위구르어와 티베트어는 민족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언어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언어는 상대적으로 산업화와 같은 외적 조건의 영향을 덜 받으며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몽골어와 조선어는 위구르어나 티베트어에 미치지 못하지만, 해당 민족공동체 내에서의 정치·문화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카자흐어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유 문자로 기록된 문헌이 풍부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유 문자로 기록된 문헌이 풍부하지 못하면 학교교육에서 해당 언어의 교육적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문자 정보화에서 뒤처지는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²⁶⁾ 이러한 점은 이후 민족어의 존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조선족의 인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공동체 내에서 언어문자의 영향력이 사용자 수가 많은 몽골 및 티베트의 언어문자와 동일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문자로 기록된 문헌의 풍부함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영향력이 미미한 중국 소수민족어의 상당수는 사멸될 가능

25) 위 표의 숫자는 사용상 중요도를 표시한 것이다. 3이 가장 크고, 1이 가장 낮다. 표시가 없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6) 위의 표에서는 카자흐문자의 정보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최근 본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문자도 코드화가 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중국소수민족 언어간지총서(中國少數民族語言簡志叢書)> 6권²⁷⁾을 2007년에 수정 출판하였다. 이는 소수민족어의 보존과 기록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시장경제 하의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민족어 자체의 존립 근거가 부족할 경우 그 생존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때 존립 근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유문자로 기록된 문헌이 출판되고 이를 교육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일 것이다.

3.2 언어 및 문자의 규범화 현황

자치주나 자치구를 이룬 소수민족의 경우는 민족어를 행정, 법률, 교육의 언어로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표준어 제정은 언어 규범화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문제였다. 이 때문에 자치주와 자치구에서는 가장 많은 수가 모여 사는 지역의 방언을 기준으로 규범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소수민족어 규범화 사업이 중단되었고, 1976년 이후 민족어 교육과 민족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언어 규범화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소수민족어의 규범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족 구성원이 자치주나 자치구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점이다. 1976년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족은 3개성, 몽골족은 8개성, 티베트족은 5개성에 흩어져 살면서 각 성 간 언어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민족어의 규범화를 위한 첫 번째 사업은 어문정책기구를 세우고 이를 통해 규범화 사업을 벌이는 것이었다.

(4) 소수민족 어문정책기구

가. 조선어: 동북 3성(吉林、黑龍江、遼寧) 朝鮮語文協議小組, 일명 3協

나. 몽골어: 8성자치구(內蒙古、新疆、青海、宁夏、甘肅、遼寧、吉林、黑龍江) 蒙古語文工作協議小組, 일명 8協

- 다. 티베트어: 5개성구(西藏、青海、甘肅、四川、云南) 藏族教育協作領導, 일명 5協
- 라. 위구르어: 신강위구르자치구 民族語言文字工作委員會

이들 어문정책기구에서는 대표적 방언으로 인정받는 말을 중심으로 표준어를 규정하였는데, 대표적 방언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5) 소수민족언어의 대표적 방언 현황

- 가. 조선어: 연변지역어
- 나. 몽골어: 중부방언(察哈爾土語)
- 다. 티베트어: 라싸어
- 라. 위구르어: 중심방언²⁸⁾
- 마. 카자흐어: 서남방언, 동북방언

그런데 표준어 제정을 비롯한 규범화 사업은 교과서의 편찬 및 편역 사업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는 교과서 편찬 및 편역 사업이 민족어정책 기구의 주관 하에 진행되었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6년 이후 가장 먼저 민족어정책 기구를 만든 내몽골자치구에서는 곧바로 8협²⁷⁾의 주도 하에 몽골어 교과서를 편찬하였고, 10년제 초중등학교 몽골문 교재를 편역하여 8개 성 자치구에서 사용하게 하였으며, 몽골문 교재에서의 신어 문제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1976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다른 소수민족 자치지역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중국의 소수민족어정책이 소수민족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교과서의 편찬 및 편역 사업은 ‘중국 내의 모든 민족이 언어, 문화, 종교의 차이를 떠나 중국의 국가적 이념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과 ‘소수민족이 각자의 언어, 문화, 종교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라는 소수민족어정책의 원칙을 보여준다. 표준어의 제정과 같은 민족어정책이 각 자치지역별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완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민족어

28) 이때 중심은 塔克拉瑪干 대사막 이북의 광대한 지구의 중심을 가리킴.

규범화 사업이 소수민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규범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자치지역별로 만든 어문사업조례이다. 이는 규범의 제정뿐만 아니라 그 시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소수민족어문사업조례

가. 자치구 사업조례

- 西藏 자치구 장어문 학습, 사용과 발전 규정(1987년 통과, 2002 수정)
- 新疆 위구르자치구 어문사업조례(1993년 통과, 2002년 수정)
- 內蒙古 자치구 몽골어문사업조례(2004년 통과)

나. 자치주 사업조례

- 延邊 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사업조례(1988년 통과, 2004년 수정)
- 海南 장족(티베트족)자치주 장어문사업조례(1989년 통과) 외 7개 지역 티베트족 자치주 사업조례
- 巴音郭楞 몽골자치주 언어문자관리조례(2005년 통과) 외 2개 지역 몽골족 자치주 사업조례

다. 자치현 사업조례

- 阜新 몽골족자치현 몽골어문사업조례(1989년 통과) 외 4개 지역 몽골족 자치현 사업조례
- 天祝 티베트족자치현 언어문자공작조례(1999년 통과)
- 阿克塞 카자흐족자치현 카자흐어문자공작조례(2000년 통과)

소수민족자치지역의 민족어정책 기구에서는 민족어의 규범화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각 소수민족의 상황에 맞는 사업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과 행정 분야 등에서의 민족어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자치 지역 내에서는 상가의 간판, 공문서 등에 철저한 이중언어 표기가 유지되는 것도 어문사업조례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소수민족정책의 틀에서 어문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어문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수민족의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과경민족이면서 동시에 국외 민족국가에 있는 조선족과 몽골족의 경우 규범 정립 과정은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이들 민족은 중국 조선어와 중국 몽골어의 현실을 반영

해야 하는 한편²⁹⁾, 국외 민족국가의 어문 현황을 참조해야 했기 때문이다. 과경민족의 어문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문제는 표준어의 설정과 관련된다. 중국 조선어의 표준은 북한의 문화어라 할 수 있는데, 조선족자치주에서는 북한의 규범을 기준으로 하되 중국 조선어의 현실을 반영한 <조선어규범집>³⁰⁾을 편찬하고 이를 언어규범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한의 표준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실은 중국 조선어의 규범화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 몽골어의 규범화에서도 외몽골어와의 관계 설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중국 내 몽골어가 이중언어 상황에서 漢語化가 심화되고 몽골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내몽골의 규범화 과정에서 외몽골어를 참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³¹⁾

둘째 문제는 문자 및 서사규범과 관련된다. 과경민족의 문자 문제는 동일민족어가 사용되는 복수 국가에서 서로 다른 언어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언어문화적 동일성을 지향하는 모순된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로는 경외 국가가 문자개혁 정책을 추진한 반면 경내 소수민족공동체가 고유문자를 유지하면서 발생한 문제, 문자는 동일하지만 맞춤법 등 서사규범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7) 과경민족의 문자 상황

가. 경외 국가와 문자가 같은 경우: 조선문, 티베트문

나. 자모는 같고 표시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苗文, 壯文, 拉枯文

다. 자모가 달라진 경우: 몽고문, 위구르문, 카자흐문

(7)의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7다)의 경우인데, 자모가 다른

29)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에 따라 새로운 중국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 국외 민족국가의 표준어와는 다른 용어를 표준어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30) 중국조선어규범위원회, 연변인민출판사, 2007

31) 현재 중국의 몽골어 학자들은 몽골국(외몽골)과의 접경지역인 시린거러(錫林郭勒) 지역에서 쓰는 말이 전통적이고 외몽골과 비슷한 점이 많으며 다른 지역의 말보다 순수하다고 생각한다.

경우 대외교류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몽골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은 현재 고유문자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족어를 사용하는 경외 국가가 신문자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외 국가에 거주하는 민족과의 정보 교류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외 국가와 같은 문자를 쓰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서사규범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북의 맞춤법을 기준으로 하는 중국 조선문의 경우 남한의 맞춤법과 다를 수밖에 없고, 한중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이는 언어생활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조선문의 규범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느냐와 관련한 조선족 공동체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문자의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 즉 통용문자인 한자와 민족 문자와의 관계 설정 문제도 어문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는 조선문 정책에서 두드러지는데, 1950년대의 朝漢文混用 주장은 언어융합론적 관점에서, 1980년대의 것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국한혼용 논쟁의 영향으로, 90년대 이후의 것은 이중언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기되었다.³²⁾ 소수 민족어정책의 흐름과 경외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문자운용의 관점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적 상황에 따라 민족어의 규범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다섯 민족어 간에서도 나타난다. 이때 규범화의 정도와 현황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언어규범의 결정체인 민족어 사전의 편찬 현황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다섯 민족어는 모두 단일어 사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수와 종류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민족어가 교육과 학술 언어로

32) 조선어 한자 어휘와 한어 한자 어휘의 연관성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선어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자는 것이 핵심적 주장이다. 현재 중국 조선족 구성원들이 조한문자혼용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2000년 6월에 연변사회과학원에서 조사한 <조한문자혼용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와 언어연구소 <조한문자혼용 사회조사보고>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민족학교 학생은 90%가 조선문자 전용에 찬성하였고, 한족학교 학생은 72.8%가 조선문자 전용에 찬성하였다.

사용되는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카자흐어로 된 일반 단일어 사전이 한 종류 출판되었지만, 조선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몽골어의 경우는 최소 2종 이상 출판되었다. 특수목적사전의 종류를 통해서도 이러한 차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특수목적사전은 조선어와 몽골어를 대상으로 한 외래어, 속담, 관용구, 빈도 사전 등이 있으며, 위구르어를 대상으로 한 관용구와 외래어 사전, 티베트어를 대상으로 한 불교용어사전 등이 있다. 반면 카자흐어를 대상으로 한 특수목적사전은 출판되지 않았다. 특수목적사전의 다양성이 그 민족어가 교육과 학술활동에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각 민족어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전 현황에서 공통적인 사실은 ‘민족어-한어/한어-민족어’의 對譯辭典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소수민족공동체에서 한어 습득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단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소수민족어로의 번역 등에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어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역사전이 증가하고, 이들 사전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되면서 조선어 대신 한국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전이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과경민족의 경우 동일 민족국가와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교류가 민족어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4. 민족어의 사용 및 언어교육 현황

이 장에서는 기존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수민족어의 사용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소수민족어 및 한어의 교육 현황과 관련지어 보면서, 소수민족어의 미래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4.1 민족어 사용 현황

중국 언어학계에서 소수민족어의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교육 및 문화수준, 대화 상황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 양상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³³⁾

특히 민족어와 한어의 사용 비율을 비교하고, 이중언어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각 민족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박순희(2006)에서는 조선족자치주를 조사지역으로 하여 대상에 따른 이중언어³⁴⁾ 사용상황을 조사했는데, 부모세대부터 같은 세대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화에서 53-56% 가량이 이중언어로, 22-35% 가량이 조선어로, 3-6% 가량이 한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티베트 라싸지역의 언어사용 상황을 조사한 周燁(2003)의 조사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³⁵⁾

단, 티베트 라싸지역의 경우 가정에서는 60% 가량이 티베트어를 사용한다고 한 반면, 조선족의 경우는 할아버지 세대와의 대화에서만 69%가 조선어를 사용한다고 답한 것을 볼 때, 조선족의 경우 가족 간 대화 상황에서도 민족어 사용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 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표3>과 <표4>는 교육수준과 언어사용 양상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는 조사 결과이다.

33) 교육 및 문화수준이 높을수록 민족어와 한어를 병용하고 문화수준이 낮을수록 민족어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 소수민족들은 한족과는 한어로 소통하고 같은 민족 내부에서는 민족어나 이중언어로 소통한다는 점, 공공장소나 공식회의에서는 한어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정에서는 민족어 사용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이 논의되었다.

34) 이 논문에서는 이중언어 대신 혼용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5) 周燁(2003)에서 밝힌 바로는 라싸지역 거주민들의 언어사용 양상은 공공장소에서는 이중언어(55.3%), 티베트어(27.4%), 한어(17.4%)의 순으로, 가정에서는 티베트어(60%), 이중언어(38.6%), 한어(1.4%)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표3> 周煒(2003)에서 조사한 언어 및 문자의 능숙도

	藏語	藏文	漢語	漢文
잘함	100%	39%	43%	32%
약간함		40%	35%	33%
못함		21%	22%	35%

위의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어와 한문을 못하는 비율이 티베트문을 못하는 비율과 거의 유사하고, 티베트어와 티베트문의 능숙도는 비례적이지 않지만 한어와 한문의 능숙도는 상대적으로 비례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교육 수준이 언어의 사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어, 한문, 티베트문의 습득은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박순희(2006)도 이와 유사한 조사결과를 보여준다.

<표4> 박순희(2006)에서 조사한 언어의 능숙도

어떤 상황에서나 모두 한어로 류창하게 교류할 수 있다	고중 (고등학생)	46.2
	초중 (중학생)	28.9
라디오, 텔레비존의 한어프로를 모두 알아듣거나 볼 수 있다	고중	35.6
	초중	51
한어로 간단한 교류는 할 수 있다	고중	16.3
	초중	16.8

<표4>의 조사 결과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표3>과 직접적으로 대응시키기는 어렵지만, <표3>의 ‘잘함’에 해당하는 학생이 80%가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3, 4>의 언어사용 현황을 ‘중국 소수민족어 사용정황과 문자 문제 조사연구’³⁶⁾와 비교하면 티베트족과 조선족 모두 한어의 능숙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36) 중국사회과학원과 국가민족사무위원회가 1986-1988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 보고서.

몽골족, 조선족 등 동북지역 민족구성원 중 이중언어 화자의 비율은 20%-50%였고, 티베트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 서부지역 민족의 경우는 이중언어 화자의 비율이 극히 낮았었기 때문이다. 특히 서부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이 지역민들의 교육문화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이와 더불어 이중언어 화자의 비율도 높아졌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문화 수준의 향상과 함께 주목해야 할 사항은 개발이 진행되면서 소수민족집거지구에 한족이 유입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수민족집거지구라 하더라도 상황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8개 현시로 이루어진 연변도 화룡, 용정, 도문, 연길은 상대적으로 조선족이 많아 조선어를 쓰는 가운데 일부 한어 어휘나 구절을 넣어 혼용하여 쓰는 반면, 기타 현시 예를 들어 돈화의 경우는 한어에 조선어 단어나 구절을 넣어 쓰는 것이 특징적이다. 돈화시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한어로 말할 때는 한족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한어에 익숙하다.

따라서 교육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한족과 소수민족들의 잡거(雜居)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국 소수민족들의 언어 사용 상황은 '[민족어]→[민족어-한어](민족어우세)→[한어-민족어](한어우세)→[한어]'의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세대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이중언어 상황에서 소수민족어가 어음, 어휘, 문형 및 수사학적 측면에서 한어적 특성을 보이는 것은 언어의 속성상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민족어의 정체성 상실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족학교에서 민족어교육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유지한다면 민족어가 한어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현 추세로 볼 때 소수민족어의 사회적 위상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민족구성원들의 의식적 노력을 통해 민족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티베트, 위구르, 카자흐 등에 비해 민족구성원의 이동이 많고 교육 수준이 높은 조선인과 몽골인 중에는 자신의 자녀들을 민족학교에 보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대부분 민족어 구사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실리 때문이다. 이는 소수민족어의 위상이 언어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4.2의 민족어 교육

현황과 4.3의 이중언어교육 현황은 언어정책이 소수민족어의 위상에 끼치는 영향을 잘 보여 준다. 이런 점 때문에 민족어문사업에 종사하는 이들과 관계방면의 전문가들은 소수민족언어문자 입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2 민족어 교육 현황

周煒(2003)의 조사 결과를 보면, 티베트 라싸 거주민의 90% 이상이 티베트에서 한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한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은 실리성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같은 조사에서 라싸 거주민의 80%이상이 자신의 자녀들은 한어와 티베트어에 모두 능통하기를 원했다. 이는 정서적으로 티베트어를 배워야 한다는 태도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태도는 티베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소수민족공동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민족어를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있을 경우 민족어를 유지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대학입시에서 민족어 우대 정책은 소수민족어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80년 이후 대학입시에서 해당 민족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고,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어문과목의 성적은 민족어문의 성적과 한어문의 성적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민족학교의 민족어교육 현황은 입시정책이 끼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소수민족학교의 고등학생들은 민족어로 된 교과서와 한어로 된 교과서를 함께 사용해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족어를 기초로 하여 지식을 습득한다는 교육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입시에서 민족어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민족어교육 시간은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많이 배정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줄여나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중학교 단계 수준으로 다시 시간을 늘리게 된다. 민족학교의 민족어 교육 시간은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3-4시간(고1), 3-4시

간(고2), 3-5시간(고3)'과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입시정책 때문에 민족 간 평등 문제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그동안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주류 민족인 한족에 대응하여 소수민족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가 한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Rong Ma (2008)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은 중국 사회가 경쟁사회에 진입하면서 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 자치지구의 교육환경이 뒤떨어지고 소수민족이 사회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오르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제기가 소수민족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입시정책은 소수민족어에 우호적이지만 교육현장에서 민족어의 위상은 낮아지는 형편이다. 결국 한어의 능숙성이 학업 및 취업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어로만 강의하는 대학에서 소수민족학생의 학습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졸업 후 취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학에서는 전공교육 전에 한어 실력이 떨어지는 소수민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어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때 한어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출신지역별로 달라지는데, 이는 그 지역의 교육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민족별로 보면 조선족이나 몽골족 등이 거주하는 동북부 지역 출신 학생들보다 티베트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이 거주하는 서부지역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주거지역별로 보면 소수민족 산재지구 출신 학생보다 집거지구 출신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수민족자치지역의 행정당국은 자치 지역의 학력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한어 강의를 장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선어문 과목만 조선어로 강의하고 나머지 교과목의 경우에는 모두 한어로 강의한다면 이는 민족어의 사용영역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족어정책 기구와 학교 당국의 선택은 신중한 편이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교육현장의 민족어교육 실태는 갈수록 열악해지기 때문이다.

몽골족의 경우 순수 몽골어로 어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급속히 줄어들어, 2009년에는 중학교 몽골어문교과서 주문량이 4만 권으로 몇 년 전의 8,9만 권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는 한어교육과 민족어교육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³⁷⁾ 교수용어의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김덕모(2006)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선호교수용어에 대한 조사’는 현재 조선족 민족학교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조사를 보면 한어보다는 조선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이 한어를 더 선호하며, 기술이나 지리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한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周煒(2003)의 조사에 따르면 티베트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이중언어로 가르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었으나, 數, 理, 化(초등학교에는 물리와 화학이 없음) 과목에서 한어를 사용할 것을 희망했고, 실제 학교교육도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때 교수언어로 한어를 선호하는 비율이 조선족보다 티베트족이 높다는 조사결과는 티베트 학생들의 한어실력이 떨어지는 상황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수언어의 선택이 한어실력을 높이는 방법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이과계열 과목일 경우 한어를 선호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통해 교수언어에 대한 선호도의 비율상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 민족학교의 교수언어 실태는 교수언어의 변화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표5> 김연옥(2009)에서 조사한 조선족 민족학교 교수언어 실태

	연길	할빈
조선어로만 한다	34.72%	22.95%
조선어를 더 많이 한다	38.89%	21.31%
절반씩 한다	0%	8.20%
한어를 더 많이 한다	9.72%	16.39%
한어로만 한다	16.67%	31.15%

37) 중앙민족대학 몽골어문학부 교수인 나무지라(那木吉拉)와의 대담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집거지구가 축소되는 현실에서 민족학교의 교수언어는 연길 식에서 하얼빈 식으로 변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이는 학교 현장의 언어사용이 한어 중심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입시제도상의 이점이 없어질 경우 민족어교육은 급격히 위태로워질 것이다.

4.3 이중언어교육의 현황

위구르족, 몽골족, 조선족, 티베트족, 카자흐족 자치 지역 민족학교의 민족어교육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는 민족어를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중학교에서는 이중언어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운남성 등에 산재한 소수민족의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한어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위에 언급한 다섯 민족어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급 민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과정에서 한어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경만 하더라도 티베트, 위구르, 카자흐, 몽골, 조선족 자치지역의 경우 대부분 초등 3년부터 한어를 가르쳤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한어교육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위의 다섯 민족도 점차적으로 초등학교부터 한어문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교수언어의 한어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자치주 행정당국이 주도하여 이중언어교육과 한어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조선족자치주의 경우를 보면 ‘조선족교육발전을 다그칠데 대한 자치주정부의 결정’(2000)에서는 “이중언어교수개혁을 중심으로 조선어를 정화(精化)하고 한어를 강화(強化)하며 외국어를 우화(優化)하여³⁸⁾ 조선족학생들의 계속적탐

38) 제고(提高)한다는 의미임.

구와 졸업후 취직의 수요에 만족되게 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천명한다. 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2003년 1월 22일 공포) 제53조에서는 “자치주 자치기관에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 내에서 조한(朝漢) 두가지 언어, 문자로 수업하는 중소학교³⁹⁾를 나누어 설치하거나 중한 두 가지 언어 문자로 학급을 나누어 수업하는 중소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교육행정부문의 동의를 거쳐 조건이 되는 조선족학교들의 부분적과목과정은 한어, 한문으로 수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수민족자치주에서 강조하거나 실행하는 내용이다.

1988년 라싸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이중언어 교육을 장려하여 3학년이나 2학년에 한어과목을 개설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는 라싸 시내 초등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1학년에 한어과목을 개설한다. 1998년과 1999년 조사에 따르면 라싸 초등학생의 55%가 이중언어에 능숙한데, 이는 전적으로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중언어에 능숙한 학생 중 어렸을 때부터 보통화를 접한 학생은 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위에 열거한 조치들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 90년대 들어 강화되는데, 이 조치들의 핵심적인 목표가 교육현장에서 이중언어교육의 강화이다. 이때 이중언어교육의 강화조치는 한어 실력의 향상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조치들은 한어교육 및 한어평가 방식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소수민족자치지역에서는 대학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의 한어문 실력을 소수민족자치지역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한어에 능숙한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대학입시는 90년대 중반부터 ‘한어수평고시(HSK)’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어를 외국어의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따른 문제가 지적되었다. 국어교육은 국가관 교육과 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어교육에서 이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이러한 맥

39) 초중등학교를 의미함.

락에서 2002년 이후 ‘중국 소수민족 한어수준 등급시험(MHK)’⁴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어평가 방식의 변화는 한어교육의 목표와 방식의 변화를 의미했고 이는 결국 이중언어교육의 방법과 수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신강(新疆) 위구르자치구의 경우를 보면, 1996년 당시 이 지역 중학 졸업자의 평균 한어 실력이 HSK 3급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서부대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이 지역에서 한어실력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언어교육 및 정책의 혁신을 불러왔다. 민족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한 위구르자치구에서 HSK 평가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HSK 평가체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2002년 이후 위구르자치구 교육당국이 MHK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이를 제도화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⁴¹⁾ 이는 이 지역 교육당국이 한어 실력의 향상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이 지역의 한어 수준이 동북지역 소수민족공동체의 수준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중언어교육 정책은 소수민족어의 동일한 발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원칙이 얼마나 지켜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HSK의 도입으로 소수민족학생들의 한어소통능력이 급격하게 높아졌지만, 언어교육의 기능주의적 측면이 유난히 강조되면서 이중언어교육의 균형이 깨지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이는 언어의 유지를 민족정체성의 유지와 관련지어 보았던 80년대의 사고방식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때문이다. 교육현장에서 한어의 사용이 확대되는 경향은 그 단적인 예이다.

이런 점을 보면 이중언어교육은 한어로 완전 단일화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이중언어교육은 1960년대의 경우처럼 외적

40) MHK는 1급-4급으로 구분되는데, 1급은 초등학교 졸업생의 한어 수준(400-800시간 학습), 2급은 중학교 및 기술학교에서 한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800-1200시간 학습), 3급은 전문대, 대학 등에서 한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1200-1600시간 학습), 4급은 대학 졸업생의 한어 수준(1600시간 이상 학습)을 평가한다.

41) 鞠文雁, 魯新民(2009)는 신강자치구의 한어교육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강요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 스스로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중언어 교육은 한어를 배우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민족어의 사용 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이중언어교육의 이중적 성격 때문에 이중언어교육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합리적인 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중국 소수민족언어학자들에게서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中國少數民族雙語教學研究會’의 설립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학회는 1979년 ‘全國民族院校漢語教學研究會’에서 출발하였는데, 국가적으로 이중언어교육을 강조하는 시점인 1985년 이중언어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를 표방하여 ‘中國少數民族雙語教學研究會’로 개명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민족대학에서는 1998년에 ‘雙語學研究中心’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중언어 연구를 위한 기반을 갖춘 것으로 의미가 있다.

최근에 가장 연구가 많이 되는 주제는 교육방법론과 관련된 연구이다. 이는 주로 한어 학습 방법론인데, 소수민족의 민족어 구조나 언어 의식 등과 관련지어 효과적인 한어 학습 방법론을 찾아내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中國少數民族雙語教學研究會’에서 출판하는 《雙語教學與研究》에 발표되고 있다. 이중언어 교수와 관련한 교수모델은 대체로 세 유형이 제안되고 있다.

(8) 이중언어 교수 모델 방식⁴²⁾

- 가. 교과 수업을 민족어로 진행하고 한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
- 나. 민족어 위주의 교과수업을 한어 위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
- 다. 교과 수업을 한어로 진행하고 민족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

본 연구대상인 다섯 민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8가)의 방식을 따르는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8가)와

42) 滕星 主編(2002: 271-272)

(8나)의 방식을, 고중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8나)와 (8다)의 방식을 선택적으로 따르고 있다. 조선족의 경우를 보면, 집거지역과 산재지역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조선어를 제1교수언어로 사용하고 조선어에 서툰 학생들을 배려해 일부는 조선어와 한어를 교차해 사용한다. 특히 산재지역에 분포해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수업시간에 한어와 조선어를 병용하는데 대체로 이중언어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에 오면 조선어문 시간 외에는 대부분 한어나 이중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중언어교육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논의가 상당수 나타난다. 이들 논의에서 밝히는 문제의 핵심은 민족어와 한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에 교사는 규범적인 언어를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규범적인 언어를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민족어와 한어의 실력을 모두 떨어뜨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周煒(2003)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는데, 티베트 소학생들 중 한어에 능숙한 비율은 54.8%인 반면, 이중언어 수업이 증가하는 중학생의 경우는 한어에 능숙한 비율이 21.3%이고, 한어 위주의 수업이 증가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한어에 능숙한 비율이 69%로 높아진다. 이런 현상을 보면 현재의 이중언어 수업이 일시적으로 한어의 능숙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티베트어의 능숙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 91-92% 정도를 유지되지만, 능숙하다고 답한 고등학생의 16%는 자신의 티베트어가 부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어와 민족어의 능숙도가 모두 교육 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실제 민족자치지구의 사범대학에서는 전 과목에 걸쳐 이중언어 교사를 특별하게 양성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중언어 교육분야에서는 한어의 능숙도를 제고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지만, 사회언어학적 조사연구를 참조하여 민족어의 능숙도를 제고하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방법론과 함께 이중언어 교육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는 이중언어교재

를 과학적으로 편찬하는 문제이다. 이들 논의에서 지적된 것은 대체로 한어문 교재를 한족 학생들이 공부하는 어문교재로 한다든지, 한족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민족어 과목 교재를 해당 민족 학생들이 배우는 민족어문 교재로 하는 것 등의 문제이다. 이는 이중언어교육이 학생들을 두 언어에 노출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를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어수준평가 방법의 과학화와 더불어 합리적인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은 소수민족어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며, 이는 민족어교육과 그 위상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결론

각 장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중국 소수민족어정책사에서의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중국 근현대사의 전개과정과 관련지어 파악하였다. 그리고 시대적 전환기마다 소수민족어의 현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소수민족어정책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더불어 소수민족어정책과 소수민족어연구의 상관성을 포착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수민족어 연구의 중심이 규범화 연구에서 사회언어학적 연구로,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 이중언어교육방법론 연구로 전환되었음을 보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대상인 5개 소수민족어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위상을 판단하였는데, 소수민족어의 현황은 언어 및 문자의 현황과 규범화 현황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언어 및 문자의 현황에서는 소수민족의 언어외적 조건과 언어적 조건이 모두 소수민족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면서, 소수민족어의 언어 내외적 조건 즉 사용자 수, 고유문자의 존재여부, 경외민족 국가의 존재 여부 등을 근거로 민족어문을 유형화하고 그 위상을 확인하였다. 문자와 언어의 규범화 현황에서는 민족문자의 정립과정, 표준어의 선정, 민족

어사전의 출판, 어문정책기구의 활동 양상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민족어의 위상을 판단하였다. 특히 과경민족의 상황에 주목하면서 境外 민족국가의 민족어가 중국 소수민족어의 규범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였다.

4장에서는 민족어의 사용 및 언어교육 현황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이중언어교육의 강화 정책과 소수민족어의 보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소수민족어정책이 민족어 학습동기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논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더불어 한어실력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직업 선택에 경쟁적 요소가 도입되는 현실에서 이중언어교육이 한어중심교육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그 근거로 한어교육 및 평가방법론의 발전 양상을 거론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본고에서는 소수민족어의 사용 상황이 '[민족어]→[민족어—한어](민족어우세)→[한어—민족어](한어우세)→[한어]'의 추세로 나아갈 것이며, 이러한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언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이에 부응하는 학교 교육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한어 교육과 민족어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언어교육의 특성상, 이중언어교육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합리적인 교육방법론에 대한 소수민족어학자들의 연구가 민족어의 교육방법과 그 위상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하였다.

< 參考文獻 >

- 김기종(2004), <중국, 조선, 한국에서의 조선문자전용정책과 조한문자 혼용, 병용정책의 략사>, 《조선어연구》(연변언어연구소) 4, 1-14.
- 김덕모(2006), <조선족중소학교의 교수용어에 대하여>, 《조선어연구》(연변언어연구소) 5, 179-193.
- 김덕삼(2005), <문화접변으로 바라본 소수민족 교육 — 중국 운남성 금평현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3, 139-161.
- 김두섭(2003), <연변 조선족사회의 최근 변화: 사회인구학적 접근>, 《한국인구학》 26-2, 111-145.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민수(1990), <언어와 민족의 문제>, 《이중언어학》 6, 5-7.
- 김병호·류춘옥 편저(2007), 《중국 조선족 인구문제와 그 대책》, 북경: 민족출판사.
- 김연옥(2009), <조선족중소학교 교원들의 언어태도에 대한 약간의 고찰 - 학교에서의 언어사용을 중심으로>, 《조선어문연구》 160, 55-60.
- 김영구(2009), <중국 소수민족 언어정책의 지향과 한계: 『베이징-오슬로 건의서』(2008)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10-2, 7-40.
- 김예경(2007), <중국의 소수민족 정의와 그 정치적 함의 -민족(民族)과 족군(族群)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2, 91-114.
- 김정호(2008), <중국의 소수민족교육과 다문화교육- 중국 초등사회과의 다문화교육 내용 탐색>, 《사회과교육》 47-1, 103-131.
- 리윤규(1995), <중국소수민족들의 2중언어현상가운데서 조한2중언어발전에 대한 전형적고찰(1)>, 《중국조선어문》 4, 4-7.
- 리윤규(1995), <중국소수민족들의 2중언어현상 가운데서 조한2중언어발전에 대한 전형적 고찰(2)>, 《중국조선어문》 5, 16-19.
- 박광득(2004),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정책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2-1, 269-291.
- 박병구(2007), <중국 다문화주의의 실태와 문제점 -한족(漢族)과 소수민족(少數民族)의 융합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30.
- 박순희(2006), <연변지역 조선족 중학생들의 언어사용실태 조사>, 《조선-한국학연구》(중앙민족대학 조선-한국학연구소) 16, 63-74.
- 엄영준(2004), <중국에서의 조선어문 교재편찬력사>, 《조선어연구》(연변언어연구소) 4, 212-259.
- 이성연(1986), <소수민족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24, 29-49.
- 이연주(2003),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연구이론과 방법의 고찰>, 《중국어문학》 42, 269-294.
- 이연주(2006),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와 어문교육의 실태>, 《중국학연구》 35, 95-118.
- 이연주(2007), <중국의 혼합어와 언어의 혼합 문제에 대한 고찰>, 《중국학연구》 41, 101-120.
- 이종열·범령령(2009), <다문화시대의 언어정책-중국의 소수민족어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3, 41-57.
- 전광진(2002), <중국 내 소수민족(55)의 서사체계 및 새로운 문자 창제>, 《중국언어

- 연구》 15, 195-229.
- 전인영(1995),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분석 - 어문·풍습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4, 73-98.
- 전학석(2006), <중국에서의 조선어교육 및 조선어사용 상황>, 《조선어연구》(연변언어연구소) 5, 1-17.
- 정신철(1999),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료녕민족출판사.
- 주장환(2009), <중국의 소수민족문제와 동아시아 평화의 전망>, 《Jpi정책포럼》 11, 1-15.
- 최경봉(2006),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학》 31, 335-363.
- 최경봉(2010), <중국 내 조선·한국학의 특성과 위상: 우리말 연구의 역사와 경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5, 103-131.
- 태평무(1998), 《사회언어학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허종국(2002),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주 한족인구의 증가원인 및 동화정책과의 관련성 연구 - 1949년 이후>, 《중국학》 19, 323-370.
- 國家民委民族問題研究中心(2006), 《中國民族自治地方發展評價報告》, 北京: 民族出版社.
- 鞠文雁, 魯新民(2009), <從 HSK 到 MHK-漢語水平考試在新疆>, 《新疆教育學院學報》 25-3, 21-26.
- 內蒙古教育出版社(1990), 《內蒙古自治區教育成就四十年》, 內蒙古教育出版社.
- 戴慶厦 外(2000), 《中國少數民族語言文字應用研究》, 云南民族出版社.
- 滕星 主編(2002), 《20世紀 中國少數民族與教育》, 北京: 民族出版社.
- 馬麗雅 外(2007), 《中國民族語文政策與法律述評》, 北京: 民族出版社.
- 費孝通(1999), 《中華民族多元一體格國》,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孫宏開(2009), <雙語教育面臨的新形勢和新任務>, 《中國國少數民族雙語教學研究會成立30周年暨學術會議》(발표논문).
- 松本眞澄(2003), 《中國民族政策之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 新疆人民出版社(1990), 《新疆民族語文工作四十年》, 新疆人民出版社.
- 吳仕民(1998), 《中國民族政策讀本》,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趙振鐸(2000), 《中國語言學史》, 河北教育出版社.
- 主耀文(1995), 《中國少數民族語文使用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周煒(2003), 《西藏的語言與社會》, 中國藏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編(2003), 《國家, 民族與語言 - 語言政策國別研究》, 語文出版社.

何俊芳(1998), 《中國少數民族雙語研究: 歷史與現實》,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Bonvillain, Nancy(1999),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 the meaning of messages*, Prentice-Hall.

Minglang Zhou and Hongkai Sun Eds.(2004), *Language polic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ory and practice since 1949*, Boston, Massachuset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Pingwu Tai(2004), Language policy and standardization of Korean in China, *Language polic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ory and practice since 1949*, Boston, Massachuset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Robert Phillipson(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Rong Ma(2008), *Ethnic Relations in China*, China Tibetology Publishing House.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ree major areas: first, how the Chinese government developed its language policies for minority races since its inception; secondly, what kind of impacts those language policies for minority races had on the status of ethnic languages; and finally, how the attitudes toward ethnic languages changed and what were their causes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e of minority languages in China.

For those purposes, the study examined the history of language policies for minority races and reviewed how those policies became sophisticated in what relation to researches on minority languages. In the process, the investigator figured out what was the transitional point in the history of language policies for minority races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Chinese history.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traced changes to trends in researches on minority languages and examined the research trends in relation to changes to the

language policies. With regard to the second and third research goal, the investigator objectivel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minority languages and discussed it in terms of the status and codification and further usage and education of written and spoken ethnic languages.

As for the status and codification of written and spoken ethnic languages, first, written and spoken ethnic languages were categorized and their status was checked based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related to them; secondly, the logic of changes to the Letter Reform policies was explained by examining the usage patterns of letters and the codification of letters; and finally, the current state of codification of ethnic languages was examined to discuss the selection of the standard language in each ethnic language, publication of dictionaries for ethnic languages, and activities of policy agencies of written and spoken languages.

Keywords: ethnic language policy, minority languages in China, bilingual education, multiculturalism, social linguistic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1.3.31	2011.4.28	2011.5.16	2011.5.20	2011.5.31